



전통업의 건축인문기행

황금빛 신비의 나라 미얀마 ④ 영국 식민시대와 아웅산 (1885-1947)

# 인도의 부속도시가 된 미얀마 독립운동 선봉장이 된 아웅산

15세기 대항해시대 이후 군사적으로 강성해진 유럽의 열강들은 인도나 동아시아의 영토에 관심이 많았다. 이전에는 중국의 원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이었으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영국이 인도양을 드나들었고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의 영토와 물산에 대한 제국의 탐욕이다. 오래된 왕조를 해체하고 군인을 주둔시키며 국민을 능멸하였고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된 대영제국 역사 마찬가지로였다.

1885년 콘바웅 왕조를 멸망시키고 미얀마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은 미얀마를 영국령 인도의 한 주(州)로 편입시켜 버렸다. 영국 총독은 인도에 있었고, 미얀마에는 인도 총독부에서 파견된 영국인 최고 행정관이 다스리게 하였다. 영국에 병합된 4년간, 영국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 때마다 정규군 병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영국의 통치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사회를 서서히 서구화시켜 나갔다. 불교사원 중심이었던 기존교육은 영국인 학교로 대체되었다. 또한 왕족과 관료 등의 기존 지배층이 붕괴되면서 영국 행정부에 임명된 미얀마 관료들이 증산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자녀들은 양국이나 인도, 영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진출하였다.

억압과 질곡의 식민지시대, 미얀마에서는 자연스럽게 1900년대 초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전개되면서 차츰 군사적 행동으로 확산되어 갔다. 1919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은 마침내 인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동남아의 맹주였던 미얀마가 인도의 한 주(州)로 전락하여 여전히 영국 총독의 통치하의 신민지로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20년경 미얀마의

민족대표자와 애국단체들은 조직을 만들어 자치권을 주장했지만 요구는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이 무렵 영국인들의 불교사원 내 착화(着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컸었다. 미얀마인들은 사원 내에서 당연히 맨발로 다니는데 영국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니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영국 상품을 불매하자는 운타르누(Wuntharnu) 운동도 일어났다.

이에 영국은 부분적으로나마 자치권을 이양하는 양두체제를 제시하게 된다. 이는 외교와 국방, 경제 등 주요한 사안은 총독부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교육과 보건, 농업 등 국민의 생활에 관한 것은 미얀마인들에 의한 자치적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운타르누 운동으로 결집된 민족주의적 운동은 양곤대학으로 파급되었다. 원인은 대학의 행정과 학사관리가 모두 영국인들에 의해서 식민지적 사고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미얀마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결국 대학에서는 미얀마인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2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은 약속대로 양두정치를 실시했다. 의회도 소수민족 대표와 총독이 임명한 의원을 빼면 전체 의석 중 60% 가량이 된, 미얀마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1937년 새로운 헌법이 발표되어 미얀마는 인도에서 분리하게 되었다. British India에서 분리되어 British Burma로 격상된 것이지만 아직도 영국 식민지대였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을 논의할 수 있었고 책임내각도 구성하게 되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미얀마 총독부에서는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조케 아웅산(Bogyoke Aung San, 1915년- 1947년)이다. 보

1885년 콘바웅 왕조 멸망시키고  
영국령에 있던 인도로 편입  
버마족 위주 미얀마 애국단체들  
자치권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영국상품 보이콧 '운타르누운동'으로  
英, 부분적 자치권 이양 양두체제 실시  
1937년 새 헌법 발표 인도에서 독립  
제2차 세계대전 발발  
日, 버마독립의용군 조직 지원한 후  
1942년 양곤 점령 1945년까지 지배  
아웅산, 30인의 동지와 함께 日에 대항  
일본 항복 후 1945년 다시 영국이 통치



미얀마 도심에는 영국 식민지시대의 과거를 보여주는 서양식의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양곤 시청사 건물 전경.



양곤 독립기념탑.

조케란 장군이라는 뜻이다.  
버마 중부의 마그웨(Magwe)에서 태어난 아웅산은 1933년 랑곤대학에서 공부했다. 대학시절 학생회장을 거쳐 1938년 '버마 전국 대학생회' 회장이 된다. 아웅산은 양곤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1936년 2월 우누와 함께 동맹휴학을 이끌었다. 이후 학생운동을 넘어 정치인이 된 후 영국식민통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운동가로 1939년 버마 공산당 창립을 주도하며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다.

1940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심해지고 아웅산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지자 아웅산은 미얀마에서 탈출하여 중국에 있던 일본 정보부와 연결되어 도쿄로 가게 된다. 당시 아웅산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미얀마군의 모체로 생각하며 선택한 것이다. 1941년 일본은 미얀마에서 '버마 독립의용군'을 창설하였는데, 이 군대는 본국으로 들어왔고 많은 지원병들로 인해 점점 커져나갔으며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다. 한편 영국군은 싱가포르에서 패배 후 전선을 인도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은 남부 미얀마와 양곤, 그리고 1942년에는 만달레이까지 쉽게 함락시켰다. 아웅산과 일본군은 서구 자본에 미얀마 민족을 팔아먹은 부역자들을 처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얀마를 독립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일본 공군은 미얀마 곳곳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으며, 미얀마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버마독립의용군'도 해체하여 '버마 방위군'으로 대체되었으며, 아웅산은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지만 군은 일본인 장교들에 의해 통제되어 움직이게 하였다. 아웅산은 일본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자 그는 인도에 있던 영국총독부와 비밀접촉을 하게 되고, 자신을 따르는 군대 및 소수 종족들을 결집하였다.

일본의 군사통치 기간은 단지 3년이었지만, 미얀마인들에겐 영국의 60년 통치보다도 더 괴로운 시기였다. 그들은 점령자로 행동했고, 미얀마인들을 능멸하였다. 그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건설에 다수의 미얀마인들이 사망하였다. 더욱이 일본이 제한 없이 발행한 군사지폐는 생필품 가격을 100배가량 폭등시켜 국민의 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하였다.

아웅산은 그 무렵 친치(Khin Kyi)를 만나 결혼해 훗날 아웅산 수치 등 3명의 자녀를 두게 된다. 1943년 일본은 자신들이 점령한 미얀마의 독립을 선언하고 아웅산은 국방장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일본의 약속에 회의적이었다. 그러자 1945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전쟁으로 몰락해가는 일본군을 떠나 연합군 세력에 합류하였고, 영국보다 잔인한 방법으로 통치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30인의 동지와 함께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AFPFL)'을 결성하여 일본에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아웅산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일본에 대항했으며 시민들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945년 5월에는 양곤이 수복되었고 영국군이 해방군으로 돌아와 2차대전 후 다시 영국군이 미얀마를 통치하게 되었다. /전남대 건축학부 연구석좌교수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